

전폭적 육성, 과감한 기용... 구광모의 '선택과 집중' 통했다

〈LG그룹 회장〉

‘LG’ 이름, 야구단에서 먼저 사용
구광모 회장 2019년 구단주 취임
승률 5할 이상 지키며 우승 노크
따뜻한 무관심 속 지원 아끼지 않아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한국시리즈(KS)' 5차전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LG 트윈스가 6대2로 승리하며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LG트윈스가 29년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면서 LG그룹도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럭키 금성이 아닌 LG라는 이름도 야구단인 LG트윈스에서 먼저 썼을 만큼 LG그룹에서 야구단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트윈스가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과감한 선택 집중으로 강팀으로 거듭났고, 결국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고객 만족'을 통해 팬들도 결집시켰다.

◆ 가을 야구 단골로

LG트윈스는 구 회장이 구단주로 취임한 2019년부터 승률 5할 이상을 지키며 우승을 노크해왔다. 이전에 승률 5할을 넘긴 것은 마지막 한국시리즈에 진

출했던 2002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과 2016년 두차례에 불과했다. 정규리그 순위도 4위 2번과 3위, 2위로 '가을 야구'로 불리는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진출했다.

'프론트 야구'로 유명했던 LG트윈스지만, 구 회장이 구단 경영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구 회장은 구단주로 취임하고도 당시 LG스포츠 사장이었던 이규홍 대표에 대행을 맡겼으며, 2021년에는 KBO 총재를 역임했을 만큼 야구 전문가로 꼽히는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을 구단주 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주)LG를 기준으로 LG스포츠 매출은 2018년에 50억원에서 2019년 85억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2020년에는 152억원, 2021년에는 136억원이었다. 프로야구 관람이 재개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2022년에서야 지원을 줄였다.

구 회장은 LG그룹에서도 '따뜻한 무관심'으로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한 바 있다. 구 회장은 계열사별 자율성을 중시해 연례 행사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통해 계열사들이 자립 능력을 강화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한 전사적인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취임 직후 지주사에 만들었던 전장사업 총괄 조직이 대표적. LG그룹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미래 사업으로 거듭났다.

◆ 선택과 집중

LG트윈스가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전폭적인 육성과 함께 과감한 트

레이드와 기용을 이어가며 전력을 가다듬었다.

일단 투수진은 자체 육성에 집중했다. 임찬규 선수를 비롯해 고우석과 정우영, 이정용 선수 등이 LG트윈스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했다.

수비진은 철저한 능력주의로 경쟁을 유도했다. 외야수인 김현수와 박해민 선수는 외부에서 FA로 영입, 대신 가능성을 보였던 홍창기 선수를 적극 기용하면서 1번타자를 육성하는데도 성공했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오지환 선수조차도 여러 선수들과 경쟁을 이어왔다.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외야수 채은성과 포수 유강남 선수를 FA로 보냈다. 외인 투수인 플랫코 선수가 부상으로 한국시리즈 진출이 불투명해지자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강수도 뒀다.

그러면서도 믿음은 잃지 않았다. 외인 투수인 켈리 선수가 시즌 초 다소 부진했음에도 꾸준히 기용하면서 결국 한국시리즈 우승을 만들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1면 'LG家 대이은 야구사랑'서 계속

헤리티지벤처스, 대규모 현수막... '왕의 기운' 담아 응원

본사 건물 전체 응원 현수막 설치
우승 대비한 현수막도 미리 제작



'헤리티지벤처스'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 건물에 LG트윈스를 응원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1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 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LG 트윈스가 KT 위즈에 6대2로 승리했다. 이로써 LG 트윈스는 4승을 해 29년 만의 우승을 차지했다.

"명당의 기운이 LG 트윈스 선수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이재혁 헤리티지벤처스 공동대표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우승 소감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헤리티지벤처스는 최근 본사 건물 전체에 LG트윈스를 응원하는 대규모 현수막을 설치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헤리티지벤처스 건물 앞을 매일 지나 다니는 가까운 동네 주민들을 비롯해 일부러 찾아와 기념사진을 남긴 야구팬들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SNS 상에

서도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 자리는 세종대왕이 나신 곳"이라며 "왕의 기운을 담아 LG 트윈스를 응원했는데 주변 이웃들도 좋아해주시고 관광객으로 인해 상권이 활기를 찾아 상생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번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지난 1990년과 지난 199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내가 힘들면 LG도 힘들었고, LG가 힘들면 나도 힘들었어요."

이 대표는 29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LG를 응원한 원년 팬인 만큼 그는 이번 현수막 설계에도 LG의 원년 로고를 넣었다.

무엇보다 우승을 대비한 우승 현수막도 미리 제작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

과감히 선수 믿고 응원

특히 13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승기를 잡은 후반에서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느때처럼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자리를 지켰다. 패배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대신, 과감하게 선수들을 믿고 응원하는 길을 택한 것. LG 내부에서도 구 회장 직관 가능성에 '우승을 해야'라고 전망했지만, 구 회장은 뜻심으로 결국 '우승 요정'에 등극했다.

구 회장은 우승 후 발언에서도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준 팬과 선수단, 스태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영광을 돌렸다.

/김재웅 기자

시민중심
덕큰 파주

제2기 파주장단콩축제

2023.11.24.(금)~26.(일)

파주 임진각광장

PAJU